

# 전문도서관 공동 수서의 방법과 전략\*

## Cooperative Acquisition Method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Libraries

차 미 경\*\*  
Mikyeong Cha

### 차 례

- |                        |                        |
|------------------------|------------------------|
| 1. 서론                  | 4.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과제 및 전략 |
| 2.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배경      | 5. 결론                  |
| 3.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모델 및 사례 | • 참고문헌                 |

### 초 록

전문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는 변화하는 출판 및 도서관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 그리고 전자자원의 증가는 자료의 확인과 전달 시스템의 향상 등 공동수서의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본 논문은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배경과 방법을 CRL, OhioLINK, RLG Conspectus, TRLN 등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동수서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Research libraries, facing the difficulties in building sufficient collections to meet the various users, have implemented various cooperative acquisition

\* 이 글은 2001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사회과학정보기관협의회·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2001 정보관 리합동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rograms. In recent years, Internet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among research libraries. This paper reviews the methods and cases of cooperative acquisitions among research libraries, including CRL, OhioLINK, RLG Conspectus, TRLN. Discussing the backgrounds and related issue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the continuous implementation for cooperative acquisition.

### KEYWORDS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Cooperative acquisition, Research library consortia

## 1. 서 론

전문도서관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장서를 구축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를 넘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장서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이나, 지금까지는 참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원의 공동이용이 중심이고, 수서 단계에서부터의 체계적인 협력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의 접근도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공동수서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전문도서관에서 공동수서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과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배경

전문도서관에서 공동수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학문의 발달과 출판동향 그리고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 및 도서관 환경의 변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학문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전문서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도서관의 자료 구입 예산은 적정한 비율로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적절한 자료의 수집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국자료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제간 연구의 증가 추세에 있어 특정 주제 전문분야의 연구도서관 이용자도 타 주제 전문분야 장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장서를 수집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출판사가 대형화되고 다국적 독점출판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출판과 유통에 이러한 출판사와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면서 이들 사이의 합병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출판과 유통 분야에 경영원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자 서비스라는 비영리적 문화에 익숙해 있어, 고도화된 경영전략 및 마케팅 기술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 및 보급은 도서관들 사이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수서를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합 목록과 서지 유틸리티는 물론 다른 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원격으로 접근하여 어느 곳에서나 다른 도서관 장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메일과 파일 전송 등을 통하여 수서담당자들이 빠르고 쉽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자료 수집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또한 이용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의 서지 자료와 함께 본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서의 도움 없이 이용자가 직접 자료전달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어, 자료전달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전자화(Digitization)된 자료가 도서관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화된 자료는 물리적인 보관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이용이 편리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하다.

공동수서의 필요성 확대와 이를 위한 기술적인 기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동수서를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공동수서에 참여하는 도서관들 사이에 균등한 공헌과 혜택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 도서관들 사이의 모든 참여 도서관이 공동수서 과정에 동등하게 공헌하지 않으며 협력으로부터 얻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참여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상당한 회생을 감당하는 도서관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불균형이 존재하면 공동수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 현실적으로 모든 도서관이 핵심 장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참여 도서관 사이에 핵심장서가 중복될 경우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서가 많아지고 이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수집을 담당할 도서관의 선정이 어려워진다. 주제 영역으로 수서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학제간 연구로 특정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다.

공동수서는 이용자 봉사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공동수서에 의한 협력장서가 외부자원의 비적절한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용자들은 그 분야에 우수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를 자관 소장자료의 확인 없이 바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외부 이용자의 증가로 모기관 이용자 봉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동수서를 위한 회의, 문서작업, 위원회 활동 등에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의 지속성과 신뢰성

에 대한 회원들 사이의 확신과 책임인데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은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고 많은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공동수서의 또 다른 장애는 경영진과 이용자의 공동수서에 대한 시각이다. 공동수서의 목적은 참여 도서관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장서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자원의 확장에 있다. 반면에 경영진의 주된 관심은 자료수집 비용의 절감에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공동수서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현재 수준의 자원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 절감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개별 도서관에서 반드시 소장하여야 하는 핵심장서의 확보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용자는 공동수서가 진행된다면 도서관 장서수집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용 가능한 자료가 감소할 것으로 보아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아무 불편 없이 손쉽게 다른 도서관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한 공동수서에 대하여 저항감을 갖는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또한 그들이 속한 기관의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우수한 장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는 다른 도서관에 의존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소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도서관의 공동수서를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도서관의 제한된 자원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용자에게 잠재적인 유용성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술 자료는 특정 이용자에게 어떤 측면으로든 유용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도서관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연구도서관은 이용자의 연구 분야와 관련 있는 특정 주제 영역의 장서를 중점적으로 유지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 연구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서개발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접근 가능한 자료의 총체적인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모델 및 사례

초기 전문도서관의 공동수서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인 Farmington Plan (1948-1972)과 National Periodicals Center(1972-1980)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공동수서는 대부분 개별 도서관의 자율성 추구하고 자료를 신속히 확인 전달하는 기술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Branin, et al. 2001).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된 Farmington Plan은 분담 수서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자료 및 기타 전 세계 신간 학술 연구자료를 미국내에서 적어도 한 도서관

에서는 소장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연방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특수도서관이 각각 국가별, 주제별로 분담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 야심찬 계획은 개별 도서관의 독자성 문제, 즉 장서수집 우선순위와의 갈등과 분담 책임의 이행에 괴리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명 무실화 되어갔으며, 1972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도한 국가수서편목계획(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s Cataloging)의 시작과 함께 해체되었다. Farmington Plan의 사례는 공동수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독자성과 분담 책임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고, 외부 지원과 강제에 의한 것보다 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연구도서관에서 실시해 온 공동수서의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서 구입을 담당할 중앙 기구를 만들고 고가 자료나 특수자료 또는 이용 요구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법, 둘째, 참여 도서관들 중 주제 분야의 장서 수집에 책임을 질 도서관을 선정하여 분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장서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별도서관이 구입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를 들 수 있다.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는 1951년에 미국 중서부의 13개 대학들의 도서관 서고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존도서관으로 건립되

었다. 처음에는 오래된 정부간행물, 신문 등을 회원도서관으로부터 이송하여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가 중심이었으나, 도서관 자료 구입예산이 압박을 받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회원도서관이 정한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학술자료를 중앙에서 구입 관리 제공해오고 있다.

CRL의 장서수집은 고가이거나 이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원 도서관이 구입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대상으로 주제 영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별, 자료형태별로 구분된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외 신문, 국내 및 국외 정부간행물 확보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1996년 한해에만도 약 80,000건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2001년 현재 인쇄본 500만권(해외학술지 7,000종, 단행본, 외국신문, 국외 및 국내 정부간행물 포함)과 마이크로폼 자료 130만건을 소장하고 있다. CRL의 장서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소장하지 않은 방대한 양의 특수장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현재 54개 기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 회원은 도서관이 아닌 모기관 즉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재정 지원도 받으나 예산의 대부분은 회비로 확보되고 있으며, 회원도서관은 소장 자료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갖게 되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도서관에게만 이용이 개방된다(Naru 1998). 이처럼 CRL이 50년간 지속되면서 회원이 증가하고 성공적인 공동수서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개별 도서관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특수장서에 대한 회원 도서관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회원도서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소수의 도서관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공동수서의 사례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으로 구성된 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TRLN)을 들 수 있다. 1995년에 시작된 이 협력망은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신문, 마이크로형태 자료, 및 고가의 자료의 수집을 상호 조정하고 있다. 이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아시아지역자료의 공동수서는 자료 선정을 전담할 사서(Shared Bibliographer)를 별도로 고용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이 프로그램은 세 대학의 남아시아 지역 연구자 모임(Triangle South Asia Consortium, TriSAC)에서 TRLN에서 남아시아 언어로 된 장서를 수집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는데, TriSAC는 장서의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단행본과 구독 학술지의 선정 책임은 전담 사서에게 있으며, 이 사서는 3개 대학을 수시로 방문하여 참여 도서관과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정한다. 구입한 장서는 3개 도서관에서 나누어 소장 제공된다. 소장 도서관의 선정은 언어별로 이루어지며, 각 도서관 소장 장서의 분석을 토대로 전담 사서가 결정한다(Filstrup, et al. 2000).

미국 플로리다 주 도서관 연구 컨소시엄 (Florida Library Research Consortium)의 특징은 주제별 장서수집팀의 구성에 있다. 1996년에 이 지역 3개 대학 도서관의 참여로 시작된 이 컨소시엄은 외부 지원금과 참여도서관의 회비로 예산을 확보한다. 장서에 개선이 필요한 4개의 주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 참여 도서관 사서들

로 주제별 팀을 구성한다. 각 팀에서는 세 대학의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고 도서관별 현재 장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주제별로 수집 담당 도서관을 선정한다. 지난 2년간 이 방법으로 수집 제공된 자료는 총 1,200건에 달한다(Hruska 2001).

1970년대 이후 분담 수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컨스펙터스(Conspectus), 즉 표준화된 분야별 장서수준평가표를 이용한 주제 분야별 분담 수서이다. 연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 RLG)과 워싱턴 도서관협력망 (Washington Library Network, WLN)등에서 각기 이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RLG의 경우, 1974년 북미 지역 연구도서관들 사이의 협력기구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9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64개 대학 및 연구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RLG Conspectus라는 주제 분야별 장서수준을 나타내는 표를 이용하여 회원도서관이 세부 분야별 현재 장서현황과 수집정책을 기초로 0(수집안함)부터 5(포괄적으로 수집)까지 수준 결정 보고한다. 회원도서관이 모두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므로 개별 도서관에서 장서정책 수립시 특정 분야의 장서를 다른 도서관에 의존할 것인지, 직접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취약한 분야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수집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서지유틸리티의 발달에 따라 참여 도서관들의 장서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컨스펙터스를 이

용한 자율적인 공동수서도 보다 발전되고 있다. 개별 도서관 장서의 분야별 현황뿐만 아니라 전체 장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총체적인 장서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79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OhioLINK(Ohio Library and Informaion Network)는 RLG Conspect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도서관들의 장서 수준(깊이와 장점)을 표시하고, 이 정보를 개별 도서관의 자율성 추구하고 도서관 사이의 경쟁의식을 극복하고 총체적 장서를 향상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Goodman 1997).

미국 포틀랜드 지역도서관 시스템 (Portland Area Library System, PORTALS)은 1993년 대학도서관 12개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연구도서관 참여로 이루어진 도서관 협력시스템이다. 이 협력망에서는 1) 연속간행물 구독중지에 관한 협정, 2) 매칭 펀드에 의한 자료구입, 3) 취약 분야 장서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방법으로 공동수서가 실행되고 있다. 연속간행물 구독중지에 관한 협정은, 한 회원 도서관에서 다른 회원 도서관에서는 구독하지 않는 연속간행물 구독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실행 전에 회원 도서관들에게 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지를 받은 회원 도서관들은 구독 중지를 승인하거나 재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자관이 구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신규 구독을 제안한 도서관에서는 구독을 중지한 도서관에 이 연속간행물을 이관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여, 실제로 도서관들 사

이의 자료 교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매칭 펀드에 의한 자료구입은 외부로부터 자료 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회원 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특정 분야나 형태의 자료 구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회원 도서관에서 구입지원 신청자료의 목록과 현재 소장 장서의 성격 및 구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전체 자료 구입 예산의 2/3를 지원하고 신청도서관에서 1/3을 부담하여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된 자료는 신청 도서관에서 관리하지만 모든 회원 도서관에게 이용이 개방된다.

최근 PORTALS에서는 장서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회원 도서관 장서들을 분류번호별로 분석하고, 장서의 단일, 중복 소장을 확인하였다. 다음 Washington대 도서관장서와 비교하여 취약 분야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추천도서목록인 Books for College Libraries와 회원 도서관 전체 소장목록을 비교하여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시하는 기본장서 50,000종 가운데 91.3%만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미소장도서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분석된 자료들은 회원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에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장기적인 장서확대계획 수립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된다. 우선 분석 자료와 각 도서관의 장서수집 방향 등을 토대로 주제 분야별로 장서 확보를 담당할 도서관을 추천하였다. 장서 구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으므로 회원 도서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여야 하나 개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제공으로 RLG의 분담수서 사례와 같이 총체적인 장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보자료의 온라인 이용 확대, 전자정보의 증가와 가격 상승 및 구매 비용 산정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공급자인 출판사와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대행사가 대형화, 상업화, 전문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도서관에서 전자자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hilLINK의 경우, 90종이 넘는 학술데이터베이스와 2,500종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라이선스비용, 관리 및 유지비용, 기타 모든 비용을 회비로 부담하고 있다. 구독 자료의 선정은 회원 도서관의 장서개발담당 사서들로 구성된 협력정보자원관리위원회(Coope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는 RLG Conspectus를 이용한 회원 도서관의 장서분석을 자료 선정 시 참고한다. 참여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자료는 유리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대행하며, 선정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구매 비용을 중앙에서 지원하기도 한다(Thornton 2000).

공동구매의 가장 큰 이점은 구독비용의 절감과 계약 업무의 대행 등 개별구매 보다 경제적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구매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의 장서구입이 컨소시엄을 통해 구매 가능한 자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참여

도서관들끼리 동종의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저널을 중복 구입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도서관 장서가 점점 유사해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절감된 구매 비용을 보다 다양한 자료의 확보에 이용하지 않는 한 접근 가능한 장서의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전자자료의 구매에 치중되어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저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에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 4.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과제 및 전략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동수서는 지금까지 외국 학술지 구독 비용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이루어진 몇몇 지역에서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장서의 총체적인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동 수서의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 컨소시엄을 통한 전자 자료의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이 주도하는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입에 2001년 현재 1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전자도서관이 국가전자과학도서관(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외학술전자저널의 공동구매에는 2001년 7월 현재 222개 기관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IMF 이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학술지 구독료 인상에 대응하



기 위한 학술잡지 분담 수서(예를 들어 서울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경기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부경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등)가 몇몇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도되었으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분야별 협의가 있음에도 회원 도서관 소장자료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서비스 등 자원의 공동이용 중심이며 공동수서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수서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공동 수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과제와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수서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수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서구입예산의 경제적인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장서의 확장에 있다. 참여 도서관들 사이의 장서 구입을 조정하여 전체 장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고가의 자료, 다양한 언어의 외국 자료, 질적으로 우수하나 낮은 이용이 예측되는 장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수서는 참여 도서관의 자율성과 공동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장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전체 참여도서관과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수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동수서에 대한 도서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이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참가 도서관들 사이의 자율성과 전체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참여 도서관들 사이의 이해 조정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서관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수서담당 사서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등을 구성되어 구체적인 공동수서의 계획과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수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참여 도서관 장서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소장 장서와 수집방향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한다. 다음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장서 현황과 비교 취약 분야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개선 방안에는 핵심장서에 대한 정의, 수집 분야 및 구체적인 실행 방법, 적극적인 외부 지원 확보를 포함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참여에 따른 보상과 수집 장서에 보존 계획도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공동수서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구축은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책임과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수서와 관련한 활동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의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공식적인 협정에 의한 강제력에 의존하기 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이는 참여에 따른 혜택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료 전달시스템 등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5. 결 론

최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장서예산의 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자료의 원격 이용 등 핵심장서소장의 중요성에 대한 이용자와 경영진의 인식이 낮아져 장서 구입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Holly(1998)가 미국 연구도서관 공동 수서의 역사를 분석한 후 경고한 바 있듯이, 공동수서라는 명목 하에 도서관 장서 구입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문도서관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직접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장서를 직접 소장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CRL이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개별 도서관의 장서구입예산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개별도서관이 구입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자료의 확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지금 보다도 훨씬 많은 학술 자료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용자들은 아마도 인쇄자료보다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서에 있

어서도 인쇄본보다는 전자 자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인쇄자료의 공동수서와 이용에는 저작권이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전자자료의 공동 구매와 이용에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비용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공동수서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동수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서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수서가 참여도서관의 독자성에 피해를 주고 핵심장서의 회생을 초래하여서는, 공동수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서를 확장시킨다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여도 개별 도서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공동수서는 가장 우수한 주제 장서분야를 가진 도서관이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이 분야의 장서를 수집하고 전자화하여 회원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서관들의 장서현황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장서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취약한 분야와 우수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취약한 분야의 개선을 위한 계획과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현황 분석을 토대로 주제 분야별 분담 수집을 담당할 도서관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ranin, Joseph, Groen, Frances & Thorin, Suzanne (2001). The Changing nature of collection management in research libraries. [On-line] Available : [http://www.arl.org/collect/changing/html/\(2001.10.20\)](http://www.arl.org/collect/changing/html/(2001.10.20)).
- Dannelly, Gay N. (1998). 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and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Partnerships in Progress. In : Simpson, Donald B., ed.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New York: Haworth Press, 37-45.
- Filstrup, E. Christian, Scepaniski, Jordan M. & Stewart, Tony K.(2000). An Experiment in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South Asia vernaculars among the Research Triangle universities. *Collection Management*, 24(1/2), 93-104.
- Goodman, Naomi J. (1997). From crisis to cooperation and beyond: Ohio-LINK's first ten years. *Resource Sharing and Information Network*, 13(1), 21-38.
- Holly, Robert P.(1998).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In : Simpson, Donald B., ed.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New York: Haworth Press, 19-35.
- Hruska, Martha, & Arsenault, Kathy (1999). Back to the future: building the Florida Library Research Consortium. Proceedings of Creating New Strategies for Cooperative Collecting Development. [On-line] Available: <http://www.crl.uchicago.edu/info/awccconf/Papers%20PDF/Atlanta%20PDF%20Files/Hruska-Arsenault.pdf> (2001. 10. 30).
- Mirsky, Phylis, Miller, R. Bruce, & Lo, Karl. From Farmington Plan to the 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new strategie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collections. *Collection Management*, 24(3/4), 251-261.
- Naru, Linda A.(1998). The Role of 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in the history and future of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In : Simpson, Donald B., ed.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New York: Haworth Press, 59-93.
- Thornton, Glenda A.(2000). Impact of electronic resources on collection development, the roles of librarians, and library consortia. *Library Trends*, 48(4), 842-856.
-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CRL). [On-line] Available : <http://www.crl.uchicago.edu/>
- Portland Area Library System(PORTALS) [On-line] Available : <http://www.portals.org/>
- 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TRLN). [On-line] Available :	<a href="http://www.ohiolink.edu/">http://www.ohiolink.edu/</a>
<a href="http://www.trln.org/">http://www.trln.org/</a>	Research Libraries Group(RLG) [On-line]
Ohio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Available : <a href="http://www.rlg.org/">http://www.rlg.org/</a>
(OhioLINK). [On-line] Available :	